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보충금 무이자 지원

정읍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5억7,000만원(도비 2억2,800만원, 시비 3억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체결한 시민이다. 신규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LH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무이자로 용자해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는 총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별 한도는 △청년 3,000만원 △신혼부부 4,000만원이며,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보건소, 골밀도 검사연중운영 '큰 호응'

고창군보건소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를 연중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골밀도 검사는 보건소 영상의학실에서 진행되며 고창군에 주소를 둔 골다공증 의심자 및 진단자 중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19세 이상 대상자는 8,000원을 수납하면 된다.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내 방 후 의사 상담을 통해 보건상담이 가능하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관리방법까지 알려준다.

관련 검사 문의는 고창군보건소 영상의학실(☎063-560-8776)으로 연락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동계 전지훈련 메카로 부상

국내외 다양한 종목 선수단 450명 유치... 수준급 체육 인프라로 국제적 경쟁력 입증

고창군이 겨울시즌 전국 각지의 유소년과 학생 선수단을 유치하며 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동계 전지훈련 시즌(12~2월 말) 전주 기전중·고등학교 농구부를 비롯해 전국 씨름 초등부 선수단, 남양주시 한강리틀야구단, 전국 태권도 초·중등부 선수단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단이 지역에 체류하며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전지훈련 참가 인원은 450여 명에 달한다.

참가 선수단은 대부분 합숙 형태로 일정 기간 머물며 집중 훈련을 소화했다. 이로 인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이용이 늘어나 겨울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12~16일(5일간) 진행된 전국 씨름 초등부 동계 전지훈련에는 전국 20개 팀이 참여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다. 선수단은 전문 씨름장과 체력단련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기초 체력과 실전 기술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전국 태권도 초·중등부 전지훈련팀으로 호주와 중국 선수단 24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고창군에 외국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체육 인프라의 우수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메달 따는 전지훈련 성지 고창군”의 매력은 종합 체육 인프라에서 비롯된다. 스포츠타운에는 축구장 3면과 야구장 1면, 실내야구연습장이 마련돼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여기에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과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집적돼 종합 전지훈련지로서의 강점을 갖추고 있다.

군립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등 주요 공공체육시설도 함께 활용되며 실내·외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종목별 특성과 일정에 맞춤형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선수단과 지

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인 대체인제 개최를 앞두고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동시에 전지훈련 여건도 한층 개선했다.

경기장과 훈련시설, 부대시설을 정비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선제적 시설 개선은 전지훈련 유치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수는 “외국 선수단 방문을 통해 고창군이 국제 전지훈련지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설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높여 선수단이 다시 찾고 싶은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보안면, 2026년 희망소통대화 개최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식·축하공연 등... 권익현 군수·300여 명민 참석

부안군 보안면(면장이철기)은 4일 보안 다목적체육센터에서 희망소통대화의 시간을 권익현 군수와 보안면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안면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식이 진행되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근능장학금 기탁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어 이철기보안면장은 2026년 면정 주요 업무 보고와 박현경 기획감사담당관의 2026년 부안군정에 대한 성과 보고가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 권익현 군수는 “부안의 미래, 흔들림 없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부안 3대 희망비전에 대해 설명과 더불어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진술하고 자유롭게 나누



는 ‘희망소통대화’ 시간을 가져 면민들이 평소 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

행사를 마친후 권익현 군수는 마을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을 끝으로 보안면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마무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진서면, 군민과 희망소통대화 성료

부안군 진서면은 4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150여명의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번산중학교 시청각실에서 2026년 결실청대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기탁식, 면정 주요업무보고, 군정비전공유, 희망소통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탁식에서는 이장협의회(회장 김을선)에서 100만원, 영농조합법인 지산지공(대표 장정중)에서 부안군 근능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조성을 위해 300만원을 기탁했고 새마을부녀회(회장 김희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각각 100만원을 기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2026년 진서면 주요 업무에 대한 김연태 진서면장의 면정업무보고를 진행하였고 이후 박현경 기획감사담당관의 군정 성과보고를 들은 후 권익현 부안군수의 부안군 3대 비전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면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진행하여 진서면민의 자긍심과 공감을 얻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마치고 관내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하여 새해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한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행정을 펼쳤다.

김연태 진서면장은 “결실청대(結實淸代)를 핵심 가치로 지금까지의 결실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진서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면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군정의 생명이다. 앞으로도 면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주요 공공시설 밀착 현장점검 나서

이학수 시장, 공공산후조리원 등 5곳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구체적 개선책 주문

정읍시가 지난 3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공시설 5곳을 잇달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관 전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시설 운영에 앞서 안전 관리와 준비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농산물도매시장 △익스트립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전북대학교 첨단과학캠퍼스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건축 부지 외에 인근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모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설 개선 공정 전반을 점검



하며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익스트립 놀이시설과 동화마을 테마공간에서는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시장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도로와 인

접한 구간에 안전시설물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에서는 관람객의 이동 동선과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했다. 특히 실내 공간별 안내 표지를 정비하고 유리벽 등 안전 취약 요소에 대한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 개관 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첨단과학캠퍼스에서는 방음벽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보수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철저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는 시설일수록 행정 기준은 더 높아야 한다”며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즉시 보완하고 정책과 실행으로 연결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선제적 매각

재정 확충·시민 편의 일석이조

정읍시가 활용 가치가 낮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2026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자투리 토지와 장기간 방치된 유휴 건물 정리하는 데 있다. 시는 올해 동안 총 100건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각해 10억원 이상의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매각 대상은 일반재산 중 대부

계약자나 유류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행정재산 중에서도 면적이 10㎡에서 600㎡ 미만인 소규모 사업 잔여지 중 행정 목적이 상실된 토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중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 △신대인 포도체합센터 △구)감곡종합복지회관 △동삼동 등 3개 동이 매각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입찰을 통해 매각하며 하반기 중 계약 및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